

Publication: on the NET

Date: 2007/11/1

Subject: Network, Telecom and Security landscape and future in Asia-Pacific, for event overview & opening presentation

on the NET

Network Intelligence for Leading Networkers

현 장 취 재 | 넷이벤트 2007

NetEvents 2006 Asia Pacific Press Summit

아태지역 네트워크, 통신, 보안의 현황과 미래

신동원 기자 | reaxbar@infoage.co.kr

행사개요

일시 : 2007년 10월 19-20일 장소 :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 주최 : 넷이벤트 인터내셔널

참여 업체 : 컨센트라네트웍스, 레드백네트웍스, 쓰리엠 티엠포인드, IDC, bda, 양키그룹, BT, MEF, MSF, 알카텔-루슨트, 패킷터어

넷이벤트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넷이벤트 2007 아시아 태평양 프레스 서밋'에서 보안, 네트워킹 관련 업체와 리서치 기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호주 등 아시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 네트워킹과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최신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넷이벤트는 1996년에 처음 시작한 네트워

크, 통신, 컴퓨터 산업 관련 업체들과 미디어, 분석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이번 행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좀더 심도 깊은 내용이 오갈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인사들의 패널 토의와 Q&A, 인터뷰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T 시장 상황과 NAC을 이용한 통합 보안, 데이터센터의 효율화, 효율적인 네트

워크 관리와 패킷 셰이핑, 캐리어 이디넷 등과 같은 최신 기술 조류에 대한 많은 토의가 이뤄졌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 상황을 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이번 행사 중 국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요 내용과 인터뷰만을 정리했다. **NET**

오프닝 프리젠테이션 | Chindia's Tech Landscape & Future Prospects



단컨 클라크 | bda 사장

중국과 인도를 합쳐 부르는 천디아(Chindia)라는 말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과 인도 시장을 합쳐 부르는 새로운 조어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울림퍼 등을 계기로 2008년 중에 3G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3G 시장은 현재 TD-SCDMA라는 표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G 시장에서 중국의 고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인도는 4억 4000만 가입자 확보가 목표지만, 통신업체의 수가 적고 통신 품질이 나빠며, 데이터 등의 부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전세계 휴대폰 단말기의 4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 업체들은 중국 이외에 또 다른 국가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려 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조 시장이 바로 인도다. 인도의 휴대폰 단말 제조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 이르면 연간 1억 1000만 개의 휴대폰 제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